

# 고교학점제, 성적 하위권 학생이 더 어려움 느껴

### 학생 대상 설문 “적성 파악 안돼 과목 선택 힘들어” ‘친구 사귀기 어렵다’ 응답...교사들 업무 과다 호소

오는 2025년부터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성적 하위권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받아들이는데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적용되면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과목 선택권이 늘어나고 시간표도 개인별로 차이가 나게 된다. 상위권 학생에 비해 하위권 학생은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과목 선택 등에서 적응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구(서교연)의 ‘서울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안착 방안 연구’ 보고서에 수록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흥미나 적성 파악의 어려움으로 과목 선택 문제가 있나’라는 질문에 내신등급 ‘하’인 학생(5점 만점에 2.94점)이 ‘상’인 학생(2.68점)보다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서교연은 지난해 9~10월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한 서울 일반고 전체(209개교)의 교사 626명,

학생(고1~2) 2046명 등 총 26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안영은 서교연 연구위원은 “교사들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 상위권 학생들이 하위권보다 대학 진학과 본인의 미래에 관심이 높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전처럼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분화된 교실에서 각자 수업을 듣고 오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고 호소한 학생도 있었다.

이 또한 내신 성적에 따라 적응도가 달랐는데 ‘이동수업에 따라 교육관계 형성이 어려움’이라는 질문에 내신 ‘하’ 집단(2.6점)이 ‘상’ (2.29점)보다 더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면담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동 수업 없이 수업할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오랜 시간 반 학생들과 함께하며 교육 관계를 쌓을 수 있었다. 이동시간이 매시간 학우별로 달라지면서 학생 스스로 적극성이 낮으면 교육 관계 형성에 어

려움이 따를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교원들이 느끼는 어려움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은 대부분 5점 만점 중 보통(3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다수의 과목에 대한 시험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부담’이 4.36점으로 꼽혔다.

이외에 ‘생활지도의 어려움’(4.26), ‘출결관리의 어려움’(4.23), ‘담임교사 업무부담’(4.06) 등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대해 채승화 전국중등교사노조 제1부위원장은 “고교학점제 취지는 좋으나 현장 교사들에게는 인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라며 “1과목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2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거의 기본이 됐고, 3~4과목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러면 시험도 그 과목만큼 내야 한다. 수업 시수는 같은데 해야 할 일은 몇 배로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적성과 진로에 맞게 수업을 골라 듣는 제도인 고교학점제는 단계적 도입 기간을 거쳐 2025년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학생들이 직접 선택과목을 골라서 시간표를 짤 수 있는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을 서울 320개 고등학교 전체에 적용하며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다. /연남뉴스

## 광주대 대학원 문창과, 아동청소년문학 탁월

### 전여울 ‘윤초옥 실종 사건’·최현주 ‘내일의 생존기’ 출간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 아동청소년문학을 전공하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잇따라 신작을 출간, 주목받고 있다.

학부 재학 중 대산대학문학상 동화 부문에 당선됐던 전여울(석사 수료)씨는 ‘사진 속 그 예’와 ‘레벨 업 5학년’(공저)에 이어 올해 창작동화 ‘윤초옥 실종 사건’을 발간했다.

광주문화재단의 지역청년예술가지원 사업의 지원으로 출간된 이번 동화는 남다른 꿈을 꾸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아이들끼리 제대로 ‘한판’ 벌이는 이야기다. 사회와 어른이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다. 전여울의 전자 ‘사진 속 그 예’는 온라인 디지털 범죄를 초등학생 시선에서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지구 아이’로 블루픽션 상을 수상했던 최현주(박사 수료 예정)씨 또한 광주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소설집 ‘내일의 생존기’를 발간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10대들의 불안한 미래, 대화 단절, 대인공포 등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넓은 스펙트럼으로, 하지만 섬세하게 짚어내고 있는 작품집이다.

문예창작학과 아동청소년문학 전공 안점옥



전여울 ‘윤초옥 실종 사건’



최현주 ‘내일의 생존기’

교수는 “이번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의 동화 및 청소년 소설집은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 유수의 아동문학 전문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문예창작 분야 관산학 협력의 모범 사례로 의의가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다문화 가정 학부모·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

### 전남도교육청, 맞춤형 언어교육·원어민 보조교사 등

전남교육청이 세계 무대에 나설 수 있는 학생을 키우기 위해 ‘이중언어에 능한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

전남도교육청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다문화 가정 강점을 활용한 이중언어교육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현장 지원 내실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

혔다. 전남지역은 다문화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5.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도 교육청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활용해 다문화 가정 부모의 이중언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조부모 나라 방문 프로젝트, 문화체험 중심 이중언어 캠프 및 맞춤형 이중언어교육, 원어민 보

조교사 수업전문성 신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수 국제교육원을 올해부터 4년 동안 국제화 특구로 재지정하고 ‘외국어 교육’ ‘이순신 교육상 확립’ ‘다문화 교육 강화’ ‘해양도시-생태환경-미래교육으로 연결’ 등의 정책을 지원한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지역의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교육과 공존·공생 교육, 이중언어 갖추기 교육이 필요하다”며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와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동강대 국내 첫 디지털 학위 ‘오픈배지’ 눈길

### 메타버스로 제46회 학위수여식...25개 학과 939명 인재 배출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졸업장인 ‘오픈배지’로 학위를 수여했다.

‘오픈배지’는 학교와 학과, 소속기관과 학위 정보 등 실물 졸업장 정보가 표시되고 특히 학생 개인의 학습이력과 경력 등을 한눈에 이미지로 볼 수 있는 디지털 배지다. <사진>

동강대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metaversity.camp’에서 ‘2022학년도 제46회 학위 수여식’을 개최, 25개 학과 939명에게 졸업장을 전달했다.

동강대는 인공지능(AI)중심교육 허브대학, 창업선도대학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난해부터 메타버스 공간에서 입학 및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강대는 이번 졸업생들에게 디지털 졸업장인 ‘오픈배지’를 전달하며 눈길을 끌었다. ‘오픈배지’는 개인의 학습 이력이나 자격, 참가 증명 등을 메일이나 SNS 등을 통해서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국제표준학습규격과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특히 종이졸업장 대신 디지털 학위발급으로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활성화에도 기대하고 있다.

동강대는 향후 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봉사, 수상 이력 등도 오픈배지로 발급·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강대 합순아 교무입학처장은 “디지털 학위증



이나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미국과 유럽의 혁신 대학을 중심으로 확산돼 졸업생들이 향후 취업 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간혹학과 경우 다양한 역량 인증 평가 때 학습 성과와 성취도를 단계별로 오픈배지로 인증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학생들 정신건강 예방·치료 돕는다”

### 동신대 학생상담센터·한결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업무협약

동신대학교 학생상담센터(센터장 박은민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대학 집단프로그램실에서 한결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동신대 재학생들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대상자 조기 발견 및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정신건강증진 교육 ▲정신건강 상담과 평가를 추진한다.

한결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이용하는 동신대 재학생들에게는 진료비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박은민 동신대 학생상담센터장은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항매산 전망대 | 안성 죽산한미당 | 부여사비 창작지구

문의 전화 **1644-6430** |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